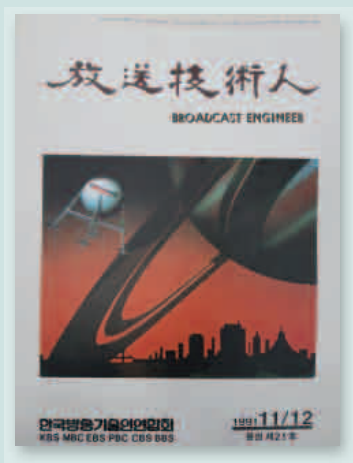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국제 협력과 기술종속으로부터의 자립 : SBE와 KBETA 간의 기술협력 조인의 배경



1991년 11/12월호, 통권 제 21호

글을 수록하며

1991년 발행된 제 21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외국 방송장비의 종속에서의 탈피는 예나 지금이나 방송기술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26년 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진행한 SBE와의 기술협력 내용과 의미를 엿볼 수 있는 글입니다. 26년 전과 비교하여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주-



글.
김경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2000년대를 불과 몇 년 앞두고 있는 지구촌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미·소를 중심으로 동·서가 대립하는 냉전체제에서 탈 이데올로기의 다극적인 구조로 세계 정치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개별국가 중심의 시대에서 개방과 상호의존의 지구촌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체제 내 협력만이 가능하던 시대에서 체제를 초월한 국제협력이 시작되어 민간자원의 교류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사회구조가 빠르게 전환되어가고 있다. 세계의 이러한 변화추세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도래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크게 부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에 한국이 직면하게 될 과제는 국제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경쟁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 중심의 개발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보, 통신, NEW MEDIA 등의 첨단 전략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MEDIA 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방송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정보화 사회가 이 지구촌을 이끌어 갈 것이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총체적 권력이 정보 다점유 지역으로 이동될 것이며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NEW MEDIA라고 갈파했다. 따라서 NEW MEDIA에서 점유율이 가장 많은 방송기술은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송기술은 어떠한가!

방송을 시작한지 64년이란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면서도 방송 1세대의 장비인 음성 MONITOR AMP까지 수입해서 사용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방송기술 정책상의 과제는 이제 제로베이스부터 설정해서 가속시켜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본다. 일본은 1984년을 NEW MEDIA 원년으로 삼고 이 무렵, 이른바 도시형 다채널 CATV가 도입되고 위성방송 사업이 실시되었다. 유럽제국에서도 80년대 중반부터 CATV와 위성 CHANNEL의 도입으로 인해 NEW MEDIA 시대를 개막하였다. 흑백 TV가 출현한 것이 1928년, COLOR TV가 시작된 것이 1951년, 그로부터 다시 40년이 지난 1991년에 들어서서는 새로운 차세대 TV가 각국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HDTV라고 불리는 새로운 영상매체에

서조차도 일본의 경우 20년에 걸쳐 완성한 MUSE SYSTEM을 산업용으로 돌리고 최근 미국에서 제안된 FULLY DIGITAL 방식인 SIMULCAST HDTV라 불리는 보다 앞선 고화질 TV의 개발을 한 시점이다.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기술발전의 급속한 속도에 정책적인 고려와 뒷받침이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방송기술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선진제국에 비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후발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선진국이 이미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극소화하여 선진방송 기술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방송기술 및 NEW MEDIA 도입 과정에는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욕구와 국제관계의 현실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80년대 초반부터 NEW MEDIA 논의가 시작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방송계 NEW MEDIA도 제대로 개발, 보급, 확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방송기술 정책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완충하지 못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방송기술 정책의 의사결정을 가진 인적구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종속의 MECHANISM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수립에 있어서 실질적인 선택의 어려움과 많은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경제체계는 기술 후발 국가들을 계속 종속적 상황에 머물게 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수많은 제도와 메카니즘을 지니고 있다.

COMMUNICATION 테크놀로지도 5-6개 선진국에 본사를 둔 수십의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의 방송 장비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세계 전체 방송장비 연구개발비의 많은 부분이 이들 기업들에 의해 쓰이



고 있다. 이처럼 높은 집중도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강력한 과점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들은 핵심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기술이전 방지품목을 지정하는 등 장애의 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기술종속을 유도함은 물론 문화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미국 등 선진국과 민간차원의 국제 기술교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종속은 기술장비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도입될 경우에 야기된다. 외국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혹은 그러한 기술의 도입선이 집중화되면 될수록 종속은 심화된다. 그러므로 모든 기술을 오직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국가는 다양한 기술도입선을 가진 나라보다도 더욱더 종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기술들은 그 도입선이 다변화될 수도 있으나 방송기술은 그 도입선이 매우 집중화되어 있다.

국제 체계는 기술종속을 영속화시키고 기술후진국들의 정보기술 선택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방송기술 후진국이 방송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은 그들 자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함으로써 스스로의 종속성을 줄여나가는 자립의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방법은 테크놀로지를 '유통' 개념('FLOW' CONCEPT)으로 보던 데서 '축적' 개념('STOCK' CONCEPT)으로 보는 데 있다. 기술에 있어서 자율성(AUTONOMY)이란 반드시 기능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중립 혹은 비동맹이란 것이 국제 체제 내에서 선택적인 관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술적 자율성 역시 후진국의 능력을 벗어나는 기술에 대해서는 선진국들과 선택적으로 서로간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부 기술후진국 대변자들은 저개발국들이 서방의 과학기술과 담

을 쌓아야 한다거나, 도처에 존재하는 각종 기술을 대표하는 서구적인 소비방식과 그들의 소비재 상품들의 침투로부터 전통문화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진국은 또한 “기술원조를 하겠다는 서방의 모든 제의를 거부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일부 후진국은 음악이나 춤과 같은 서구문화양식들 뿐만 아니라 서방의 뉴스와 오락프로 등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적인 기술능력을 고무시키고 고유문화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활력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통신위성이나 대형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확실히 외국의 기술과 교호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더군다나 기술개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국경을 넘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후진국가는 국제 경제체제가 개별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연변이나 중공과 같은 나라가 서방의 시장경제와 결별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저개발 국가들은 그러한 단절이 결코 바람직한 것도 또한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보기술에 있어서의 자립이란 개발도상국이 VMU나 AMU들을 다시 발명해 내야 할 필요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단지 그들 나라가 VMU나 AMU를 재발명할 역량을 갖추고자 애써야 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 발명된 VMU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인 자립이란 “부분적으로 기술종속적인 상황에 있는 부문 또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수행하며, 자율적으로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자립은 국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건하에서 그러한 필요를 찾아내고,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만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자립은 특정국가가 기술종속의 역동성을 이해하고서 이를 극복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주체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자신감을 발휘할 때에만 이룩될 수 있다.

기술종속에서의 자립

거의 대부분의 저개발국 기술체계는 이중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즉 여러 세기에 걸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 사회가 근대적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 도시들은 선진국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많은 경우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부분은 서로 독자적으로 움직여 나간다. 근대적인 부분은 진보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전통적인 부분은 퇴보해 가는 듯이 보인다. 근대적인 도시영역은 통상 이전된 기술을 사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적으로 또는 전통적인 영역에는 종종 낯설은 여러 가치와 기법, 물질 및 조직 등이 혼재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전통적인 기술들은 과소평가되거나 저발전의 상태에 머물게 되며 때로는 자취를 감추어 버리기도 한다. 그 결과 제3세계의 고유한 기술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고유의 기술을 재건시키는 데에 어떤 간명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빈곤층의 필요에 부합되는 소규모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자기 나라를 부차적이거나 열등한 위치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세련된 첨단기술을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종속적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자립도를 높이려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혼합시킨 기술들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하는, 바로 그러한 양극단 사이의 적정 균형점이 필요한 것이다.

기술연구 개발에 있어 자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단계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 저개발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1차적으로 수입되어야 할 다른 나라 기술을 선별해야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기술 도입선에서 적정 하드웨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로 정책결정자들은 구체적인 필요에 맞는 새로운 기술제작을 위해 설계된 고유의 연구 개발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저개발 국가는 그들의 발전목표에 부합되는 기술을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선택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발전의 목표가 뚜렷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즉 특정기술을 수용하여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보다 많은 대중의 참여를 도모한다거나 사회적 통합의 강화, 학교교육의 내실화, 성인의 문자 해독률 제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어떠한 자산이 목적달성에 유용한가를 알아야 한다. 자본이나 인력, 기능 및 기존의 기술 등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세번째로는 응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는 경제적, 비경제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데 사회구조, 교육적 배경, 전통 가치, 문화뿐만 아니라 하부구조의 수준과 인구밀도 및 분포상황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발전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술이란 반드시 소규모적이거나 노동집약적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 그 자체에 어떤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의 선택이란 간단히 말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접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절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관정보와 그러한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저개발국에 있어서 정책 결정자들은 기술적인 정보에 대해 무지하며, 그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UNESCO와 UNIDO의 도움을 받아 여러 정보센타를 설립한 바 있다. 그러한 정보센타는 때로는 독립적인 기구의 형태로 혹은 특정 연구소나 여타 기구의 하부조직으로 운용되고 있다.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들 정보센타를 활용하는 수준은 나라마다 각양각색이다. 어떤 나라의 경우는 정보센타가 자문기관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서, 어떤 경우에는 소규모 도서관의 형태를 지니거나 단지 책들만 모아놓고 있는 곳에 불과하기도 하다. 정보센타가 정책결정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 센타에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훈련을 받은 정보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 뿐만 아니라 정보와 기능이 있어야 한다. 기술 후진국가들은 대개 이러한 것들을 결여하고 있다. 상당수의 정책결정자들이 기술을 가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많은 경우 그러한 기술이 적용되는 기준과 그것이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기술 토착화를 위한 연구개발

우리나라 방송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한 역량은 자본, 과학적 지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국가적인 연구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즉 개혁을 단행하는 능력은 정보와 과학적 하부구조는 물론 자본과 노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국과 정부산업체간의 협동, 교육부문과 생산부문, 그리고 견실한 재정기반과 방송기술인들의 창조적인 에너지 간에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응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개개인 또는 집단 등의 '사회적 매개체' (SOCIAL CARRIERS)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새로운 방송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ENGINEER는 방송기술인지 등에서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여 자신이 이해한 것을 동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특정기술을 개인적으로만 응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확산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에 부합되는 노하우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쌍방향적이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고 방송기술계, 교육계, 산업계, 노동, 행정 및 과학에 종사하는 국민들 간의 상호협동을 고무시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모든 수준에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에 충만해야 한다. 토착적인 고유의 기술개혁을 이룩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어, 서로 협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 결정적인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와 방송기술 간부들의 자신감이 필요하다. 저개발국가의 경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발전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토착적인 기술개혁을 이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술창조라고 하는 것은 발전적인 변화와 상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3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제반 영역에서 고도의 기술개혁을 이룩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주 적은 인구를 가진 저개발 국가가 50개국 이 넘는다. 그들 나라들은 기술자와 엔지니어, 그리고 과학자 등이 부족하며 규모 있는 경제를 이루어나갈 수도 없다. 그렇다고 모든 제3세계 국가들이 기술의 창출 및 개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진국들은 엇비슷한 문제와 욕구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제3세계 특정국가에서의 기술개혁이 다른 나라들에 비교적 쉽게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발도상국가들 간의 기술협력 (TCDC :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은 특정지역 및 제 3세계 전체의 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미국 SBE와의 기술교류 협력조인에 이어 멕시코의 방송 기술연합체인 AMITRA와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개발국가들 간의 국제교류를 통한 전문화와 지역적인 협력은 개발도상국간의 상호 지원과 격려를 가능케 해 줄 것이다. 만약 다국적 기업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응용에 굳이 연구개발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개발국가들 스스로 자신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1979년에는 개발도상국간의 기술협력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유엔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회합과 계획수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고유의 기능을 창조하고 공유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의 목적은 분명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방송사 등 관련기관의 방송 기술개발에 대한 무관심을 타할 것이 아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착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외래의 기술을 조심스럽게 선별하고 통합화시켜 나간다면 협력과 자립 및 자율의 정신은 고양 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가에 대한 종속성을 줄이고 빈곤이라고 하는 근본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될 때, '줄리어스 니에레레'가 말한 바와 같이 기술은 인간의 탐욕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SBE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기자재 및 기술 습득은 기초에서 첨단방송기술에 이르기까지 그 실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부분 수입,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지난 10월 3일 미국 휴스턴에 있는 SBE 컨벤션센터에서 이루어진 SBE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한미방송기술협정' 체결을 통한 국제적 문헌정보 교류 및 기술제휴는 방송기술 후진국을 모면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며, 한국방송기술 발달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서는 "양 협회는 범세계적으로 방송산업에 대한 기술규제에 관하여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한국 내에서 SBE를 대표하며 SBE 지부를 결성, 조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로하고 있다.

SBE는 미국의 ABC, CBS, NBC, CNN, NAB, SMPTE 등의 핵심기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최첨단 방송 장비의 설계나 제작을 도맡아 하는 AMPLEX나 ZENITH 등의 주요 방송장비 제조업체들의 중진급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 세계 방송기술의 유수한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SBE는 실로 모든 최첨단 방송기술과 기자재 연구 개발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앞으로도 그 핵심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SBE와의 교류는 최첨단 국제 흐름에 함께 하고, 그 기술정보의 유입 통로를 개설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기술보호장벽을 높이고 통제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동향은 방송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방송과 관련된 첨단기술의 정수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나 DIGITAL HDTV와 같은 기술은 단편적인 외신이나 행사소식으로 밖에 접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

에 대하여 회사나 정부기관, 각급 연구소 등을 통한 접촉에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SBE는 정부의 기술보호통제에 끊임없이 항거,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탈규제를 외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인 친선 방송기술교류를 추구하고 있는 SBE와의 협정체결은 위에서 언급한 기술정보문맹을 해소시켜 주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양 단체가 모두 순수 민간차원의 단체이고 개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개인차원의 교류를 할 수 있어 회원들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교류가 가능해지므로 핵심기술정보의 습득이 용이해지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방송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방송기술에 대한 정책이 방송의 구조 그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각 국의 기술정책동향을 상호교환하는 가운데, 타국의 경우를 사전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나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초석의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SBE는 현재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그 본부를 두고 있어 전 세계의 18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JOHN BATTISON에 의하여 창립된 이후 꾸준히 회원이 증가하여 현재는 6000여명을 넘고 있다. 그 주요 사업 영역은 회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직장 알선이나 자문, 정보교류, 기술기준 제정에의 참여 등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SBE의 회원들은 대부분 방송사와 방송기기 제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기술인들로서, 오퍼레이터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는 다르게 하드웨어 기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SBE의 사업 중 특이한 것은 그들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 회원들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대단한 명예로 여기고 있었다. 그 자격증은 방송계에서 권위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어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거나 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 중 자격을 얻은 사람은 최근 집행부의 꾸준한 홍보와 잘 준비된 교육스케줄의 덕을 입어 2년 전의 50%에서 현재 63%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SBE가 각 국가들이 높이 세운 기술보호장벽을 깨고 순수한 국제적 기술교류 즉, 국제적 탈규제화를 추구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단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SBE와의 협정체결을 통한 한미

방송기술의 국제협력은 한국의 방송이 안고 있는 방송기술 후진국이라는 참담한 현실의 낙인을 말끔히 씻고 방송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제공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교류-제공받다-그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됨을 인식해야 한다. SBE를 통해 방송기술선진국들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방송기술의 토착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급변하는 최첨단 기술정보의 신속한 유입과 수용은 종속되어 있는 기술이 자립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줄 것이며, 이후 토착되는 한국방송기술은 방송기술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미래를 앞당겨 열어 줄 것이다. 